

# 세계 경제 위기 극복과 한국 경제 전망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 | 육근만



지난해 9월 15일 주요 언론을 통해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러더스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우리나라는 추석연휴 기간이었는데 금융권 관계자들은 급히 사무실로 달려 나와 사태의 추이를 살펴야 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최악의 금융위기로 확대되어 전세계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져드는 순간이었다. 선진국의 자산 버블로 시작된 위기는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을 통해 전세계로 전파됐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은 더 큰 후폭풍을 맞게 되었다. 주가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금융·외환 시장이 불안해지고 실물경기 또한 급격한 침체로 빠져들었다.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번지자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속히 전면에서 나서서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고 금융기관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였으며, 정부도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등 통화·재정 양면에서 이례적인 확장정책을 폈다. 가히 기존의 교과서적 메카니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까지 내리고 금융시장에 27.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금융완화정책과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를 통한 155.7억달러 규모의 외화자금 공급 및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미국과의 통화스왑 등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떨쳐내고자 노력했다. 중앙은행의 강력한 시장안정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금융시장 기능을 복원하고 실물경기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정부 또한 경제정책 기조를 빠르게 확장모드로 전환하며 위기대응 체제를 가동시켰다. 10년 전 외환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법인세, 소득세 등의 감세를 통해 작년과 올해 각각 10.8조원, 38.8조원 규모의 재정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불안심리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에 힘입어 금융위기 이후 900p대까지 급락했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1,700p대를 돌파할 정도로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때 달러당 1,600원 가까이 치솟았던 환율도 최근 수개월 동안 1,200원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실물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 7월 들어 산업생산이 9개월만에 전년동월대비 플러스로 돌아섰고 지난 8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200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비도 회복 기대를 갖게 되었다. 또한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반영하여 IMF는 종전의 연 -3.0%이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8월 들어 연 -1.8%로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우리나라의 KDI 및 민간경제연구소들도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던 해외 투자은행들의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경쟁적으로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던 이들 투자은행들이 이제는 제로 수준에 근접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플러스 성장 전망치까지 내놓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해외언론들도 우리 경제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실는가 하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해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시켰다.

세계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자 그동안 위기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줄이고 급팽창한 재정지출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초 런던에서 열린 G20 경제정상 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세계 각국이 최악의 위기상황은 넘기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아직은 주요국의 뚜렷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데다, 국제 원자재가격 불안, 달러가치의 불안정성, 자산시장의 버블 재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경기회복 징후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투자 등은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년 여간의 각별한 노력 끝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겨우 끈 상태이다. 이제는 향후 대응체제에 대해 고민해 볼 때이다. 우선 그동안 위기극복 과정에서 시행했던 각종 대책들이 부동산 버블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도 마련해야 하고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금융공조 체제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은 지난 1년간 겪었던 혹독한 위기에서 벗어나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이다.